

동방학술상이란

일본 동방학회(회장 나카무라 하지메)에서 주관해 시상하고 있는 동방학술상은 불교문화와 학술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보인 학자에게 수상하는 국제적인 학술상이다. 동방연구회는 인도불교학을 주로 연구하는 순수학술단체.

불교학계 '권위인정' 김지건박사 올 수상

한국에서는 김지건박사(대한불교진흥연구원장)가 '해동화엄(신라화엄)'의 주제 논문을 통해 해동불교의 주제적인 연구성과를 인정받아 지난 3월 제10회 동방학술상을 한국인으로 유일하게 수상했다. 학술상은 그동안 슈미트 하우젠교수(함부르크대) 판디아교수(델리대학) 야마구치이호교수(동경대) 등 세계적인 불교학자들에게 수여됐다.

응용불교학 연구 '소극적'

불교학-타학문 연계 시대적 요구 전공영역확대...갈활기식 경계해야

지난해 동국대가 부처님의 가르침과 인문·사회과학을 비교·연구하는 '응용불교학' 전공과정을 석·박사과정에 개설했지만 아직까지 불교와 타 학문간의 비교·연구는 미미한 것으로 밝혀졌다. 동국대 석·박사과정의 응용불교학 교과목은 △비교종교학 △불교사회학 △교과학 등 10여개. 지난해 7월부터 2학기동안 동국대에서 발표된 불교학 석·박사논문 19편중 응용불교학 관련 논문은 3편, 그나마 복지만을 주제로 발표했다. 불교학과 심리학, 철학, 과학 등 인문·사회과학과의 비교·연구를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대중을 가르치는 학문이 응용불교학이다. 미국과 유럽 등에서

이미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대의 불교학술지 <태평양 세계>(Pacific World)에 게재된 논문 '현대과학과 원시불교의 윤리' 컴퓨터공학을 이용한 불교미술 연구 등이 응용불교학의 경향과 관심을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올해 상반기 10여개의 인문·사회과학 학술세미나에서 불교관련 주제가 다양하게 연구·발표된 것과 비교할 때 불교계 응용불교학 연구는 지나치게 소극적이라는 지적을 면할 수 없다. 박경준교수(동국대 불교학)는 "기성 불교학계는 자신의 전공 영역을 확장하고 개발하는 노력하고 종단에서도 타 학문을 연구하는 불자들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류승무교수(중앙승가대 사회복지학) 역시 "불교학계의 응용불교학의 토양이 풍성하지 못하지만 21세기 다원주의 사회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응용불교학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응용불교학은 경전의 깊이있는 이해와 인문·사회과학의 연구방법론의 균형있는 조화가 요구된다. 인문·사회과학 연구방법론이 빈약한 불교학계는 타 학계와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응용불교학'을 가르칠 수 있는 교수들을 임용하는 등 자구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학계의 지적이다. 한국에서 응용불교학이 보다 활성화될 때 '종도세' '사찰환경' '사찰경제' 등의 현안에 대해 불교계가 주제적으로 인문·사회과학적 견해를 적극 수용해 해답을 찾을 수 있게될 것이다.

오종욱 기자

4와 경전

아미타경



한 광수
우석대 교수·생명자원학

불자라면 누구나 정토를 꿈꾸게 되고 더불어 그곳에 나기를 갈망하게 된다. 또한 인간이 갖는 어쩔 수 없는 유한성과 현실이 주는 고통이 세면 클수록 보다 나은 세계에 대한 바람과 영원한 생명성에 대한 동경심은 비례로 커지기만 한다.

불교정토는 중생이 사는 현세계를 맑고 깨끗하게 만들거나, 이 세계와는 다른 청정한 정토로 중생을 인도하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극락세계에 대한 내용들을 표현해 놓은 정토경전의 본의가 어디에 있는가는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나는 몇년전 정토사에 계신 강사스님과의 인연으로 <아미타경>을 보는 기회를 가졌지만, 그때만 해도 자기 해석에 급급해 깊이있게 새기지를 못했다. 그런데 마침 지난 해에 정토불교대학에서 정토사상에 대한 강의가 있어 <무량수경>과 <관무량수경> 등을 볼 수 있었다. 그것이 <아미타경>에 대한 나의 인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아미타불이 계신 곳을 극락정토라 하는데 그곳은 아무 괴로움이 없이 즐거움만 있는 곳으로 표현되고 있다. 그것은 불교의 극락세계가 시공의 개념이 보다는 번뇌가 다한 지극한 안락국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한다. 또한 극락세계를 이상적으로 그려 놓은 것은 대중적 정토에 대한 표출로 볼 수 있다. 이것은 곧 중생을 청정하고 완전하게 하는 일인 것이다.

유심정토설에서는 만약 보살이 정토를 얻고자 하면 마땅히 그 마음을 청정히 하고, 그 마음 청정함에 따라 불교도가 청정해진다 하였다. 또 육조해능의 단경에서는 '어리석은 이들은 스스로의 성품을 깨닫지 못해 동과 서를 원하지만 깨달으면 어디든지 다 정토이다' 하였다. 물질문명의 그늘속에서 자기를 잃고 방황하며, 자신속에 내재돼 있는 불성(佛性)을 찾지 못하는 현대의 우리들에게 있어 극락정토에 대한 새로운 자각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독송경전의 으뜸...극락정토 염원담아 번뇌다한 안락국 제시한 중생 귀의처

<아미타경>은 앞의 두 경과 함께 <정토삼부경>의 하나이면서 절정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은 구마라집이 번역한 <불설아미타경>, 구나발타라가 번역한 <소무량수경>, 현장의 <정토정토불설수경>이 있는데, 중국과 우리나라에서는 이 세가지 번역본 중 구마라집 역본이 널리 유포되었다. 이 역본은 간결하고 유려한 문장으로 독송경전의 으뜸으로 꼽힌다.

경의 내용은 부처님이 기원정사에서 사리불과 많은 보살, 제자들에게 아미타불과 그 국토인 극락세계의 공덕장엄을 말씀하시고, 명호를 칭하여 현세의 제불호법과 내세의 정토왕생을 설하며, 최후에 육방제불이 석존의 말씀이 진실한 것을 증명하시며 경설을 들은 모두가 환희법열에 심취한다는 것이다.

정토경전의 성립배경이 확실하지는 않지만 소승불교의 전래지역 보다는 대승불교의 흥기지에서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그 지지자들에게 의해 이루어졌을 것으로 생각 할 수 있다. 대승 불교에서는 많은 부처님의 세계와 정토가 있음을 설하고 있고, 그 중 가장 널리, 오래 신앙되고 있는 것이 아미타불신앙이다.

경의 내용은 부처님이 기원정사에서 사리불과 많은 보살, 제자들에게 아미타불과 그 국토인 극락세계의 공덕장엄을 말씀하시고, 명호를 칭하여 현세의 제불호법과 내세의 정토왕생을 설하며, 최후에 육방제불이 석존의 말씀이 진실한 것을 증명하시며 경설을 들은 모두가 환희법열에 심취한다는 것이다.

정토경전의 성립배경이 확실하지는 않지만 소승불교의 전래지역 보다는 대승불교의 흥기지에서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그 지지자들에게 의해 이루어졌을 것으로 생각 할 수 있다. 대승 불교에서는 많은 부처님의 세계와 정토가 있음을 설하고 있고, 그 중 가장 널리, 오래 신앙되고 있는 것이 아미타불신앙이다.

정토경전의 성립배경이 확실하지는 않지만 소승불교의 전래지역 보다는 대승불교의 흥기지에서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그 지지자들에게 의해 이루어졌을 것으로 생각 할 수 있다. 대승 불교에서는 많은 부처님의 세계와 정토가 있음을 설하고 있고, 그 중 가장 널리, 오래 신앙되고 있는 것이 아미타불신앙이다.

"깨·사운동 실천력 부족"

연기영교수 日 동양철학회 초청강연서 지적

"조계종의 '깨달음의 사회화 운동'은 토인비의 21세기 신문명론과 비교되는 한국불교계의 자성적 운동이었지만 이론과 실천은 부족하다." 연기영교수(동국대 법학)가 일본 동양철학회 초청 강연에서 '한국사회에 있어서 불교의 역할과 현황' 주제발표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연교수는 "깨달음의 사회화 운동이 시민운동단체와의 교류가 부족해 불교민의 사회운동으로 변해가고 있다"며 "시민운동단체와 긴밀한 관계를 조성하는 것이 한국에서 불교사회운동의 성공 비결"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연교수는 "아시아의 아힘사운동(인도), 사회개혁운동(태국) 등과 같은 불교사회운동을 연구·수용해 한국적인 불교운동이론을 정립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연기영교수

"돈황문학, 신라불교설화의 모태"

신상성교수 논문발표 <삼국유사> <금오신화> 등에 실린 불교설화는 '귀신'이 등장하고 '인과 응보'의 주제를 다루는 등 전개 방식과 문제 등에서 돈황의 불교문화와 동일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신상성교수(용인대 국문학)의 '중국 돈황문학이 한국문학에 미친 영향'에 따르면 한국 불교설화에 영향을 미친 돈황 소설에는 <환원기> <수신기> <계안록> 등이 있다. 신교수는 "억울하게 죽음을 당한 주인공이 귀신

이 되어 악을 징벌한다는 '인과응보'의 주제를 다룬 <환원기>는 <금오신화>의 '이생규장전' 등과 유사하며, <수신기>의 '조조목축'은 <삼국유사>의 '조신설화' <대장엄경>의 '잡보장경' 등과 동일한 내용의 설화를 실고 있다. 또 신라학자, 고려가사, 조선시대의 소설 등에도 문학과 산문이 뒤섞인 돈황문학의 특이한 문체가 고스란히 남아있다는 것이다. 이 논문은 한국비교학회(회장 주종연)의 학회지에 게재된다.

학술단신

원전전문학림 여름강좌

가산불교문화원(원장 지관)이 원전전문학림 계절학기 강좌를 마련한다. 개설된 강좌는 지관스님의 '한문불전연구' 이지수교수(동국대) '범어 어학연수' 이종철교수(정신문화연구원)의 '범어 원전연구' 허일범교수(진각대)의 '티벳어 어학연수' 최봉수박사(동국대)의 '팔리어 어학·원전연구' 등. 교육기간은 7월 첫째주부터 10주간. (02)765-9602

한국불교학 학술 연수

한국불교연구원(이사장 정병조)이 제24회 한국불교학 연수를 8월13일부터 15일까지 2박3일간 적지사(경북)에서 개최한다. 이번 연수에는 <계초심학인문> (염불요론) 등 교양교육과 참선·기도정진 등이 실시된다. 연수 신청은 7월31일까지. (02)3411-6167

해의 한국학전공자 연수

한국정신문화연구원(원장 이영덕)이 한국학을 전공하는 외국인에 대상으로 7월14일부터 8월9일까지 '한국문화강좌'를 연다.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올바르게 소개하고 한국학 연구 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마련된 이번 강좌에서는 △한국문화 △유적답사 등을 교육하며, 중국 일본 몽골 미국 러시아 폴란드 등 16개국 35명이 참가한다.



◇지난 1, 2일 아산재단이 주최한 국제 학술회의에는 21세기 동양철학의 비전을 제시했다.

"禪사상 환경친화적 가치관"

심재룡교수

캄루파하나교수

"불교는 인간해방 가르침"

아산재단 국제학술대회

아산사회복지사업재단(이사장 정주영)이 지난 1,2일 양일간 롯데호텔에서 동양사상과 서양사상의 조화를 통해 현대문명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21세기의 도전, 동양윤리의 응답'의 주제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회의에서 캄루파하나교수(하와이대)는 '인간미를 지닌 도덕철학·21세기를 위한 초기불교사상'에서 '서양철학이 절대이성을 강조해 인간을 종속시킨 반면 불성(佛性)을 강조한 불교는 고정된 현상을 부정하고 변화와 연속성을 수용한 가르침으로 인간을 해방시켰다'고 말했다. 캄루파하나교수는 "만물의 이해와 포용을 바탕으로 한 불교의 도덕철학은 현대인의 이기

주의를 다스릴 수 있는 방편"이라고 강조했다. 심재룡교수(서울대 철학)는 '환경문제와 동양철학 사상' 주제의 발표에서 "모든 존재는 상호연기적이라는 선불교의 탁경은 환경보존과 개발이라는 환경의 난점을 치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심교수는 "선불교는 부처님의 가르침인 무아(無我)와 도교의 무위(無爲)를 결합하고 그 위에 다시 도선의 풍수사상과 같은 심미적 자연관을 수용했기에 인간이 자연 속으로 들어가 자연의 일부로서 기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회의에서 두 웨이밍교수(하버드대) 위 임스교수(프린스턴대) 등 해외석학 20여명은 동양윤리를 바탕으로 자연친화적 공동체적 가치관을 구현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모았다.

Advertisement for EVO skin care products. Title: 신토불이 무공해 오염되지 않은 피부! 신선한 自然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Content: Various benefits of EVO products, including natural ingredients and skin health. Includes an image of the EVO product box and a list of features.